

남원 파프리카 수출·소비 '쑥쑥'

천혜 환경·스마트팜 시너지...52개 농가 3600여t 생산 年 98억원 수입...3분의 1 일본 납품 '수출농산물 1위'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남원의 효자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1일 남원시에 따르면 운봉읍 일대 고랭지에서 자란 고품질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이다.

남원 고랭지 명품 파프리카는 지난 2001년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를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규모화를 추진해온 결과 현재 52농가가 30ha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연간 3600여t을 생산해 98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일본에 수출해 연간 34억원 안팎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어 남원시 수출농산물 1위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 파프리카의 성공은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함께 첨단시설을 갖춘 덕이다. 이곳 시설하우스는 첨단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PC나 모바일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와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으로 제어해 작물의 최적 성장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스마트팜'이다.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가, 품질 향상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남원의 파프리카 수확은 4월 말 첫 수확을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진다.

수확된 파프리카는 전량 운봉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해외로도 수출된다.

이처럼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춘향골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등 농식품부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 평가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및 첨단비닐온실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간 1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여름재배 주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봉읍 시설하우스에서 한 농부가 잘 자란 파프리카를 수확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군산해경, 최신예 구조정 새만금 배치

사고예방·인명구조 활동 등

군산해양경찰서 새만금 파출소에 배치돼 운용되는 연안 구조정이 'S-96정'이란 명칭으로 지난 18일 취역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새만금 신지항에서 열린 취역식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민간구조협회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했다.

S-96정은 'S'는 소형(Small) 구조(Save) 탐색(Seach)의 의미를 갖고 96은 건조 연번을 뜻한다. 이 구조정은 고군산군도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구조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길이 14.3m, 폭 4.26m로 가벼운 알루미늄(AL) 재질로 선체를 만들어 최대속력 35kn(노트)까지 가능하고 물을 뿜어내는 워터제트(waterjet) 추진기능



으로 어장이나 그물과 관계없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박종욱 군산해경 서장은 "해양 안전, 구조중심의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장비의 효율적 운용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S-96정이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새만금 수라 갯벌서 멸종위기 조류 서식 확인

검은머리갈매기 30여 마리 등

조사단, 갯벌 원형 보존 강조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인 수라갯벌에 멸종위기 조류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검은머리갈매기와 쇠제비갈매기 등이 수라갯벌에 무리를 지어 서식하고 있다. 조사단은 최근 한 달 동안 새만금 주변 생태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쇠제비갈매기는 826개 동자에 1천600마리가 서식 중이고, 멸종위기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 30여 마리로 목격됐다.

겨울마다 새만금 갯벌에 찾아온 검은

머리갈매기는 방수제 공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눈에 띄게 개체 수가 줄었다. 조사단은 갯벌 매립이 진행될수록 조류 서식지가 줄어들어 개체 수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동철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이미 붉은어깨도요 등 많은 조류가 새만금 사업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멸종위기에 처했다"며 "뒤늦게 생태유지를 만들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 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인 새만금 갯벌에는 저어새를 비롯해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황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고창군, 마을 공동급식 을 22개 마을 확대 실시 농번기에 최대 40일간 지원

고창군이 농번기에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마을 공동급식을 올해 22개 마을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리사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20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 시설이 갖춰져 있는 마을이다.

지역 특산물인 수박과 복분자 수확철 등 농번기에 최대 40일간 지원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바쁜 농사일로 점심을 쟁겨 먹기 어려운 농민과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효과도 있다"며 꾸준히 이를 확대해겠다고 말했다.

정읍 중심가 전봇대 사라진다...지중화 사업 추진

市, 15억 5000만원 투입

시청앞~새암로 구간 공사

정읍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심지역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공사 구간은 시청 앞 기아자동차~중앙로(400m) 구간과 정읍세무서~새암로(120m) 구간이다.

시는 이들 구간의 한전과 공가통신, KT의 전선과 케이블선 등을 매설하고 기존 선로와 지장 전주를 철거한다.

시는 지중화 사업을 위해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가 12월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주민 합동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과 주변 상가 의견을 수렴하고 4월에는 관련 기관



도시경관 사업이 진행될 정읍시가지 일원. <정읍시제공>

간 업무협약을 거쳤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KT, 공가통신사업자(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세종텔레콤)가 시행하며 시가 포장 복구를 담당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를 없애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자살 사고 예방 지역사회 연계 강화

익산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 상황 대응 교육 등

익산시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과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생명사랑·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익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자살시도를 방지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상담과 치료기관에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의뢰체계를 구축해 우울증과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의료수급권자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살예방시민연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의뢰체계의 구축,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다.

/익산=유정영기자 yjj@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오피스텔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8층, 33평, 코너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보 5백만원에 월50만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급매 - 7200만원

문의.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